

농흉의 임상적 고찰 (108례 보고)

가톨릭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연성모·문석환·김치경·조건현·왕영필·김세화·곽문섭

농흉은 다양한 원인, 임상경과, 치료방법을 갖는 흉부감염질환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질환의 조기진단, 원인 균주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 적절한 외과적 치료가 성공적인 치료에 중요한 요인임을 본 교실에서는 흉부외과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다. 저자들은 최근 5년간 경험한 농흉 108례에 대해 의무기록 및 방사선 소견을 참조하여 임상분석을 하였다. 연령분포를 보면 10개월에서 83세이었고, 소아(15세이하)가 13례(12%)로 성인에서 월등히 많았고, 남녀비는 남자 75례(69%)로 2.2배 호발하였다. 농흉발생 선행질환으로는 폐렴 및 폐농양이 21례(19%) (소아 9례), 결핵성 농흉이 34례(31%), 폐절제후농흉이 9례(8%), 전폐적출술후 농흉이 4례(4%), 비절제성 개흉술후 농흉이 13례(12%), 외상후농흉이 11례(10%), 복강내 감염증이 6례(6%), 패혈증이 2례, 기생충이 3례,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5례가 있었다. 흔한 농흉의 증상으로는 중복되어 발열, 흉통, 호흡곤란이나 특이 흉부증상이 없는 예가 7례(6%)이었다. 원인 균주로는 포도상 구균이 27례(25%), 연쇄상 구균이 11례(10%), 폐렴구균이 2례이었고, 그람음성균(대장균, 클렙시엘라, 녹농균, 프로테우스, 장구균)이 42례(38%), 혐기성균이 11례(10%), 결핵균이 6례, 폐디스토마가 3례이었다. 치료방법에 있어서는 일차치료로 흉관삽입술에 의한 배농을 시도하였는데 소아의 11례는 더이상의 치료를 요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만성 농흉 소견을 보이는 예에 대해서는 개방성 개흉배농술 9례(기관지흉막루 7례), 흉막박피술이 26례, 흉막 및 폐엽절제술이 3례(기관지흉막강루 2례), 흉막전폐적출술이 1례, 자가조직이용례가 5례(흉벽근육 4례, 대망유리술 1례)이었다. 수술사망은 없었고 만기사망이 5례(패혈증 2례, 흉벽천공성 농흉에 의한 창상출혈 1례, 식도천공 2례)있었고 술후 합병증으로 농흉재발이 2례, 장기간 흉관유치가 3례 있었다.